

# ‘내실·정도경영’ 3.4만호 공급, 주택강자 앞날 “푸르지요”

## ▣ 건설사 경영전략

### ⑨ 대우건설

작년 이어 2년 연속 3만가구 준비 공급부족 서울지역 물량 대폭증가 올 흑석11구역 재개발 수주 쾌거 내실·정도경영, 미래동력 확보 주력



김형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이 올해 총 3만479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사업 강자’의 자리를 이어갈 태세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 유형별로 ▲아파트(2만8978가구) ▲주상복합(3133가구) ▲오피스텔(2365실) ▲타운하우스(315가구) 등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만9159가구, 지방에 1만5632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규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물량이 2020년 1057가구에서 2021년 7809가구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방 물량도 대부

분 광역시 위주로 공급돼 안정적인 청약수요 확보가 예상된다.

#### ◆전국서 3만4791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3384가구이며, 자체사업 물량은 지난해 1598가구에서 4104가구로 증가했다. 세운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시행사가 발주한 민간도급사업을 통해 1만63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산 문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민관공동사업으로 967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1509가구의 재개발 시공권을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대우건설

획득하며 새해 첫 출발을 알렸다. 흑석11구역은 준 강남권으로 불리는 흑석뉴타운에서도 손에 꼽히는 입지로 불린다.

이밖에도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장위10구역 재개발 등 7809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수원 망포지구,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에 분양을 준비한다.

지방은 대구 ‘수성더팰리스 푸르지요 더샵’을 시작으로 대구 이천문화지구 재개발, 대구 상인동 공동주택, 부산 안락1구역 재건축, 부산 범일동 공동주택 등 광역시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3가지 전략

대우건설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내실경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정도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목표 중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경영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양적 성장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주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면, 시장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추가 공종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시공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도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변곡점을 지나 성장 가도로 접어들고 있다”며 “여기에 강한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면 비전 2025 글로벌 톱 20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OTT 산업 성장 수혜... 트래픽 비례 매출 확대

### 株라클라의 종목 인터넷 인프라 전문 | 케이아이엔엑스 |

OTT 1위 넷플릭스 고객사 확보 디지털 뉴딜 정부 정책 호재도

코스닥 상장사 케이아이엔엑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됐다. OTT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급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적 호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충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케이아이엔엑스는 트래픽 증가에 비례해 매출이 확대되는 수익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며 “OTT 산업 성장으로 인한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케이아이엔엑스는 2000년 설립된 인터넷 인프라 전문기업으로 201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연동(IX) 등이 주요 사업 부문이다. 올해 매출 비중은 IDC가



케이아이엔엑스 주요 고객사

80%, IX가 12%, 기타 8%로 추정된다.

OTT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넷플릭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CISCO)은 올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동영상 비중이 8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7월 장기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기반 확보를 위해 국내 스튜디오 2곳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케이아이엔엑스도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에 따라 반사적인 수혜를 누릴 수 전망이다. 넷플릭스 시청시간이 늘어나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케이아이엔엑스의 랙(Rack) 수요도 증

가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정책적 호재도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사가 수혜를 받을 시 케이아이엔엑스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리서치알음은 올해 케이아이엔엑스의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 830억원, 영업이익 2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15.3%, 23.0%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서 적정주가로 12만원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고양시, 집 값 상승률 ‘전국 1위’ 규제 역풍선... 1년래 최대 2억 ↑

정부 광역교통대책 등 추진에 덕양구 등 인근 아파트도 올라

경기도 김포, 파주 등이 잇따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자 인근 고양시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일산구를 포함한 일대 집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최근 GTX(수도권광역철도)-A노선 신설이 발표되며 교통 호재까지 더해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기는 등 호가도 급등하고 있다.

고양은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양도소득세 증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김포, 파주 일부 주변 지역 아파트값이 일산 지역을 턱밑까지 추격하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59㎡)는 지난해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재작년인 2019년 12월 3억8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1년 전 가격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전용면적 84㎡)는 지난해 5억7000만원에 팔렸다. 3억8000만원에 거래된 1년 전과 비교해 2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지난 달 기준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은 전월 대비 각각 1.51%와 0.65%로 축소하고, 특급호텔 바우처, 골프장 그린피 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했다. 또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및 새로운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라인업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정연우 기자

시, 파주시 등 수도권 주택 매수세가 물리던 지역이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투자 수요가 가까운 고양시로 이동하면서 지난해 거래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GTX-A 창릉역 신설 등 광역교통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인근 아파트 호가도 오르고 있다. 창릉신도시 근처에 있는 덕양구원흥동일스위트(전용면적 84㎡)는 현재 13억5000만원에 매물이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9억원에 거래됐다. 도래울센트럴더포레(전용면적 84㎡)도 10억원을 훌쩍 넘긴 1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새 아파트 분양권도 오름세다. 대곡역과 가까운 덕양구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라씨는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지난해 말 7억5000만원, 대곡역두산위브는 7억1500만원에 팔렸다. 공사가 진행 중인 두 아파트의 최근 1개월간 매물 평균값은 9억~11억원에 이른다.

교통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것. 그러나 창릉역 신설까지는 사업비 부담, 역사신설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연우 기자

## KB證 ‘에이블 프리미어 멤버스’ 개선

KB증권이 11일 고액자산가(HNW·High Net Worth)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에이블 프리미어 멤버스(Able Premier Members)’ 서비스를 전면 개선했다.

‘에이블 프리미어 멤버스’는 KB증권 VIP 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다. 최상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산관리부터 여행, 쇼핑, 골프, 문화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연간 단위로 제공한다.

KB증권은 올해 ‘에이블 프리미어 멤버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며, 멤버십 고객대상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블랙’, ‘피플’ 2단계 서비스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 ‘프리

미엄 블랙’ 등급을 추가로 신설해 멤버십 등급을 3단계로 확대했다.

기존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소하고, 특급호텔 바우처, 골프장 그린피 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했다. 또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및 새로운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라인업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